

차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현재, 2시간30분 동안 열린 평의 끝에 선고기일 확정... "TV 방송 생중계 허용한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현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기로 했다. 현재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며 "선고 시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현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기로 했다. 현재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며 "선고 시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고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선고 기일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48조에 따르면 통상 선고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한 때는 다른 재판관에게 이유 요지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탄핵심판 주문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이 된다. 반면 기각이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히게 된다. /뉴시스

최훈열 "미세먼지 근본대책 세워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의원은 제34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최훈열 의원

최훈열 의원은 중국과 충청남도 등 인근 지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을 미연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1일 1시간이라도 '나쁨'이 발생한 일수가 2016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270일 중 103일이나 발생, 이삼일에 하루는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 농도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부터 2016년 9월 까지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이고 초미세먼지는 35마이크로그램(㎍/㎥)으로 경기도, 충청북도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OECD 평균 14.05마이크로그램(㎍/㎥)의 3배 이상에 달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인 10마이크로그램(㎍/㎥)의 3~5배 수준이다. 공기가 가장 깨끗한 나라로 꼽힌 호주는 5.9마이크로그램(㎍/㎥)이다.

최훈열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 전북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러"고 촉구했다. /인재용 기자

야권 대선주자 '女 내각 참여 확대' 한 목소리

'세계 여성의날 기념대회' 에서 낙태죄 폐지는 모두 '유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차기 내각에 여성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공약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날 기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후보는 모두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보라색 계열의 넥타이 내지 스카프를 매고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도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단계적으로라도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은 모든 평등의 출발"이라며 "성평등 세상을 위해 남성도 함께 해야 한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성평등 세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자신이 내뱉던 '10 to 4 더불어민주당 정책(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육부모 유연근로제 도입)'을 비롯해 여성 대상 폭력 근절, 성교육·인권교육의 공교육 포함 등을 공약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여성 정치인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의 여성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 수준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청와대와 내각부터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며 "(여성 참여 비율을) 임기 초기 30%에서 시작해 끝날 때 50%를 달성, 양성 평등 내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한층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여성 내각 참여비율 의제는 유일한 여성 대권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제안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 성평등정책토크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재명(왼쪽부터)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함께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 대표는 2015년 취임해 남녀 동수내각을 구성한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거론, "트뤼도는 어떻게 (동수내각을) 구성했나고 물으니 '지금 2015년'이라고 말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몇 년인가. 2017년에는 다른 선진국보다 늦었지만 성평등 내각을 실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선주자들에게 민감한 이슈로 평가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 허용범위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도 있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행사 뒤 교육개혁토론회 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및 동성혼에 대한 질문에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한국교회연합

소속 목사들과 만나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낙태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는 "이게 전적으로 다 허용한다든지 전적으로 막는다든지 이진 아니지 않나.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네 지금은 여성들의 건강권까지 포함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도 "낙태 전면 허용은 좀 고려해봐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두 후보 모두 대체로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관련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16일 성평등 정책 발표 당시 "성소수자 문제와 낙태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고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문제"라고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뉴시스

민주당, 재보궐선거 후보접수 완료

4.12 재보궐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후보 접수가 마무리됐다.

도당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7일 완주군 라 선거구에 김정환(61) 현 고산농협 이사, 이성식(53) 전 천호성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유희성(62) 현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등 3명이 등록했다.

전북도당은 8일 제2차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서류심사, 면접, 경선방법결정, 후보자를 압축한 이후 오는 10일 경선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이어 14~15일경 경선을 거쳐 오는 23일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문재인, 부천시 고문사건 피해자 권인숙 교수 영입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정부에서부터 남녀 동수 내각을 위해서 노력해나가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집권시 내각에 여성을 대거 기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세계 여성의 날'인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미니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공약으로 약속하기는 쉽지 않지만 단계적으로라도 남녀 동수 내각을 향해 노력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참여정부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여성)장·차관 정부직을 배출했다. 그런 노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캠내 여성의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우리 캠프에 여성 전문가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여성을 더 많이 모시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다. 여성들도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사를 돌며 여성 당직자에게 꽃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1986년 부천경찰서 고문사건의 피해자이자 여성학자인 권인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서울대 의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교에서 여성학 석사, 클라크대학교에서 여성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여성학 교수를 지냈으며 2003년부터 명지대에서 여성학 강의를 해왔다. 그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인 '울림'의 초대 소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4년에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뉴시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곡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복합한 교육
행복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